

2018년 2월 28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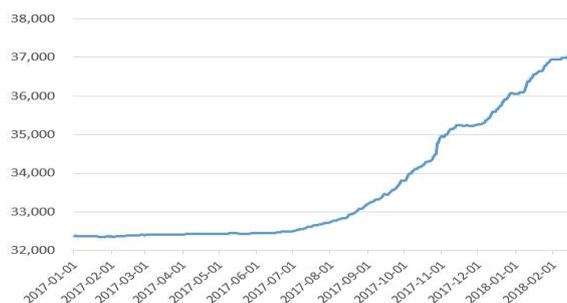
emerics@kiep.go.kr

최근 이란 리알화 가치 하락 배경과 전망



- 미국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(rial)화 환율이 2017년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임.
 - 2018년 2월 22일 기준 달러 대비 리알화 공식환율은 37,210리알로 2017년 7월 초에 비해 1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환율은 약 44,900리알로 20%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임.
 - 이란은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공식환율과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시장환율 등 이중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음
 - 이란은 공식시장환율은 2월 13일 달러당 5만 리알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 - 리알화 가치 하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안(포괄적공동행동계획, JCPOA) 파기 위협 지속, 이란 내 달러 수요 증가, 시리아 및 예멘 내전 등 지역 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비 지출 증가 등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.
 - 미국과의 긴장 관계는 이란 투자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 면제를 연장하기는 하였으나 핵합의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향후 핵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힘.
 - 대이란 제재가 완화된 이후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국내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이란 국민들은 달러 보유를 선호하고 있음.

표1. 달러 대비 리알화 환율 추이



주: 공식환율 기준임
자료: Central Bank of Iran

- 이란 정부는 리알화 가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외환 보유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한시적 예금 금리 인상, 환전소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함.
 - 이란 중앙은행은 2월 18일부터 2주간 1년 예금 금리 상한을 15%에서 20%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투기 의심 계좌 775개를 동결함.
 - 2017년 9월 중앙은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20%가 넘는 예금 이율을 15%로 제한한 바 있음.
 - 한편 시장 교란의 이유로 10개 환전소가 폐쇄되었으며 90명의 환전업자가 체포되었음.
 - 정부의 단속 조치 이후 시장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임.

- 계속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이란 내 대규모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루하니 정부의 정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됨.
 - 2017년 12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도 계란 등 기본생활품 가격 급등, 실업률 증가 등 개선되지 않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음.
 - 이란 물가상승률은 2016년 8.7%에서 2017년 10%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 -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해 온 루하니 대통령이 2018/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휘발유 가격 50% 인상,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점도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원인이 됨.
 -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고용창출, 환율 안정을 통한 물가상승률 억제, 부패청산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루하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수정이 필요함. **EMERiCs**

참고자료

Central Bank of Iran, Financial Tribune, Al Jazeera, Oxford Analytica, EIU, Reuters 등

(작성: 장윤희 연구원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)